

예술 밖에 존재하는 '예술'을 위한 공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오픈 파티 / 얼토당토

일시 : 2007. 10. 21. (일)

장소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주최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2007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는 새로운 삶과 예술을 실험하고자하는 예술가, 비평가, 전시기획자, 시민운동가, 노동자, 이주민 등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각 영역의 예술가들이 장르를 초월하여 크로스 오버할 수 있는 다원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7년 8월 안산시 원곡동에 문을 열었다.

리트머스는 그동안 공간 리모델링 작업과 조직구성 작업을 거쳐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얼토당토'는 리트머스의 공식적인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오픈파티이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_M0tFM5j5qQ

일수불퇴 장기대회

기간 : 2008. 7. 6 (일)

장소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주최/주관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후원 : 경기문화재단

총괄 기획 및 진행 : 백기영 (디렉터), 김진희 (큐레이터)

장기대회 해설 : 꾸러기 스튜디오 (백승기, 성충경)

장기대회 평론가 :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학예사)

일수불퇴-예술가들과 함께하는 2008 장기대회(이하 일수불퇴)는 장기를 매개로 이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남의 장을 펼치고자 하는 시도이며 안산의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문화적 교류의 실험이다.

국경없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원곡동 공원에서는 언제나 삼삼오오 장기를 두고 있는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일수불퇴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커뮤니티와 예술가들이 접속해 보고자 하였다.

장기는 동시에 두 편이 서로 지혜를 겨루는 전통적인 유형의 보드게임으로써, 이번 대회에서는 이주민과 예술가가 지략과 전략을 겨루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진행과 해설에는 꾸러기 스튜디오(백승기, 성충경 <http://blog.naver.com>)와 김종길(경기도 미술관 학예사)님이 함께하여 말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대회 실황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에 방송될 예정이다. 대회는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우승자는 20만원과 상장, 준우승자는 10만원의 부상을 수여받는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nRtc8_OrJA

리트머스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 듀얼 게임
Litmus International Residency - Duel Game

기간 : 2008. 7 ~ 12.

결과 전시 : 2008. 10. 25 ~ 10. 29

장소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주최/주관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후원 : 경기문화재단

총괄 기획 및 진행 : 백기영 (디렉터), 김진희 (큐레이터)

참여작가 : 이용훈 + 마니 라마 (네팔), 백정기 + 찬 부항 (베트남), 정유미 + 이세 (말레이시아), 최혜정 + 싸이 쓰레이 보타나 (캄보디아)

아시아 지역 예술가의 이동과 접속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듀얼 게임은 아티스트 셀프 매니지먼트(Artist Self-Management)라는 방법으로 작가 대 작가의 능동적인 교류를 지향하였다. 작가는 각각 한 달 동안 서로의 상대국에서 체류하며 협업을 위한 이동과 만남을 지속하고 해외작가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안산이라는 곳은 최대 이주민 거주 지역으로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계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이제껏 경험하기 어려웠던 아시아의 문화를 담지하고 있다.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 닮은 듯 다른 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현재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시작되고 있다. 듀얼게임 또한 이제껏 아시아라는, 문화적으로 깊이 조명되지 못했던 주변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을 통해 현재적 상황의 교류와 같이 고민하고 삶을 확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문화적 탐구와 실험의 장을 펼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다문화의 도시에 대해, 일상에 매몰되어 생활문화 외에 예술적 차원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다문화적 콘텐츠를 오히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여러 콘텐츠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써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국의 예술가와 한국의 예술가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닌 교류가 일어나고 확장하는 코어(core)로써 본 지역의 가능성을 돌아보고자 함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듀얼게임은 작가의 능동적인 제안을 통해 각각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각각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교류와 긴밀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예술적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고 충돌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함께한다. 이는 마치, 말 그대로 둘이서 하는 게임(Dual Game)을 이르는 말이며 이는 한국의 작가와 아시아 개별 국가의 작가 혹은 활동가 함께하는 둘만의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작업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며 파생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게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바벨 디스코스

Babel Discours

Indonesia 인도 中國 Việt Nam नेपाल

기간 : 2012. 3 - 2014. 11

주최/주관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후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괄 기획 : 백기영

진행 : 송지은, 이미경, 이인혁, 안대웅, 정재민, 주희란

바벨 디스코스 워크숍

바벨 난장 파티

바벨 디스코스 RPG

바벨 디스코스 결과 발표회

내국인이 주도하는 다문화 운동의 맹점은 한국어로 소통하거나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짧은 기간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이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동원되거나 수동적 참여에 그쳐왔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곡동에 필요한 언어공동체 구축사업을 통해 아시안권 언어 학습에 새로운 견인차가 되고 이를 통해 원곡동 내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리는 안산시 원곡동은 2009년 5월 1일 다문화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언어를 통해 아시아 5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의 문화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원곡동 내에 다문화적인 일상을 예술과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주민들이 자국의 언어로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자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확립시키는 장기적 언어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바벨 난장 파티는 리트머스에서 개최한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 5개국의 언어로 학습한 내용을 해당 국가별 시, 소설,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공연 및 낭독회를 진행했으며, 바벨 디스코스 RPG(Role Playing Game)은 다문화 밀집지역 원곡동에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 게임으로 학습하는 활동프로그램이며, UCC 제작을 통해 SNS로 확산시켰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5n2-V3uD-Ys>